

서울신문

'남편을 스승처럼'... 빈곤과 싸우며 독립운동 헌신한 사대부 집 여인

입력 : 2019-09-09 22:34 | 수정 : 2019-09-10 02:13

1920년대 초 심산(心山) 김창숙이 중국 베이징 우당(友堂) 이회영 집에 찾아갔더니 그의 얼굴이 매우 초췌해 보였다. 심산이 “공원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했더니 우당은 거절했다. 우당의 아들 규학이 말했다. “이틀 동안 밥을 짓지 못하였고 의복도 모두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문밖에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입고 나갈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치로 600억원대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우당은 죽는 날까지 빈곤과 싸우며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런 우당을 평생 뒷바라지한 사람이 부인 이은숙 여사다.



▲ 이은숙 여사

이은숙의 1888년 8월 8일 추녀 고조에서 고려 만 추시 이새이 후소이 하사 이씨 지